Hamlet의 'Solid/Sullied Flesh'

李　京　植

I

*Hamlet*는 전달과정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본문을 갖고 있다. 첫째는 1603년에 출판된 First Quarto text(이하 Q1)이다. 이것은 'Bad' Q로서 극단이 지방공연 때 사용한 기억재구로 엮어진 무대본이 후에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활자화된 reported text이다. 따라서 이것은 debased되고 corruption이 많은 매우 불완전한 본문이다.

둘째는 1604~5년에 출판된 Second Quarto(이하 Q2)이다. 이것은 'Good' Q로서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autograph MS 혹은 foul papers)에서, 그리고 표지의 주장에 의하면 'the true and perfect Coppie'에서 인쇄된 가장 권위있는 *Hamlet*의 text이다. 이것은 길이에 있어서도 Q1보다 삼분의 일이 더 길다. 그러나 인쇄는 지극히 부정확하게 되어 최초의 셰익스피어 본문들 중에서는 인쇄가 가장 잘못된 것의 하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식자공(들)은 원고의 단어들을 잘못 읽거나 멋대로 추측하여 식자했고 또 글자, 단어, 구, 행, 대목(passage)들을 빠뜨림으로써 본문에 손상을 입혔다. 때로는 셰익스피어의 독특한 글씨모양이 식자공(들)의 오독과 오식을 유발한 것도 있었다고 보겠다. 특히 'expectancie'를 'expectation'(3. 1. 160)으로, 'vnsele'(=unseal)을 'vnfold'(5. 2. 17)로 한 것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오식들은 press-corrector가 원고 참조에 의하지 않고 교정을 보았기 때문에 오식을 간과한 것은 물론 본문을 더욱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존하는 7권의 Q2 copy들을 비교해보면 press-corrector가 'shortlie'의 오식인 'thirtie'를 'thereby'(5. 1. 321)로, 'Vnion'의 오식인 'Vnice'를 'Onixe'(5. 2. 283)로 고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물론 원고 참조에 의하지 않은 교정에 기인된 것이다.

또 Alice Walker의 연구 'The Textual Problem of *Hamlet*: A Reconsideration'(*RES*, n.s. II, 1951, 328-38)과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C.U.P., 1953)는 Q2의 식자공이 Q1의 annotated copy를 인쇄원고로 하여 Act I을 식자했다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밝혔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Q2 전체가 가장 권위있는 MS에서 인쇄된 것이 아니므로 Q2의 본문상의 권위는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Q2의 인쇄의 질은 비록 Q2가 가장 권위있는 *Hamlet*의 text인데도 First Folio text(이하 F)의 reading들보다 열등한 reading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셋째는 1623년에 출판된 First Folio에 수록된 *Hamlet* text이다. F text도 'Good' text임에는 틀림없지만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를 인쇄원고로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Q2보다는 그 권위가 덜하다. F는 Q2에 없는 85행을 지니고 있지만 Q2에는 들어 있는 270여 행을 빠뜨리고 있다. 이 omission은 prompter의 cut로 보아 F text를 무대본 출신으로 추측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하여 Q2(1. 2. 58~60)에 나오는 Polonius의 말

Hath my Lord wroung from me my slowe leaue

By laboursome petition, and at last
Vpon his will I seald my hard consent,

를 F는 'He hath my Lord'로만 하고 있다.

Charlton Hinman은 1940년 경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이상 세 가지의 *Hamlet* text들의 상대적인 권위도를 다음과 같이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 Q2가 셰익스피어의 foul papers에서 조판된 것이기 때문에 본문상의 권위는 가장 크지만 가장 부정확하게 재생되었다. 그 이유는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식자공이 식자한데다, 원고를 해득할 수 없을 때는 훨씬 권위가 없는 Q1를 참고 하였기 때문이다. F text는 foul papers보다는 신뢰성이 덜한 prompt-book의 전사본에서 인쇄되었다. F text는 무대본의 전사본을 인쇄원고로 가졌기 때문에 이중으로 'true originall'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때로는 Q2 식자공이 와전시킨 곳에 correct text를 보지하고 있다. 또 Q2-F text가 서로 일치하는 대목은 그것이 제아무리 불만족스러운 reading이라고 해도 경솔히 reject 할 수 없게 하는 점에도 F text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후 이 의견들은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Q2가 *Hamlet*의 true text에 대한 'our best surviving witness'라는 명제는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기타 의견은 달라져서 Q2의 부정확한 것들이 대부분 식자공의 무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것이다. Q2는 두사람의 아주 노련한 식자공들에 의해서 인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만족스러운 text로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원고의 peculiarities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Q2는 그것의 모든 부분을 위해 동일한 원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앞서 Walker의 연구결과를 언급한 바 있지만 Hinman도 Walker의 의견을 주시한다. Walker 같은 학자는 Act I은 foul papers에 의해 정정된 Q1에서 인쇄된 것이라면서 Act I에 해당되는 Q2의 부분은 Q1의 저질본문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Q2의 권위가 다른 부문의 Q2의 권위보다 적다고 했다.

또 Walker는 F text가 original promptbook의 전사본 출신이라는 것도 부인하고 F를 위한 인쇄원고는 prompt-book의 전사본과 대교된 Q2의 한 권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녀는 Q2와 F가 공유한 erroneous readings와 철자와 구두점 상의 striking anomalies를 들었다. Greg도 1955년에 F가 Q2에서 인쇄되었다는 주장이 proof를 많이 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후 Harold Jenkins 등은 F와 Q2의 차이들이 적어도 유사점들만큼이나 striking함을 들면서 Walker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Hinman, 1964).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종합한다면 오늘의 의견이 나온다. 즉 F *Hamlet*는 어떤 점에서는 Q2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으며, 이점은 이것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substantive text가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Q2는 자체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Hamlet*의 text에 대한 principal authority로서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 졌다.

II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근원을 가진 *Hamlet* text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꽤 까다로운 편집상의 문제들을 제시한다. 그 중의 하나가 Q2와 F의 variant의 처리 문제이다. Q2의 reading이 월등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F의 상응하는 reading보다 열등하거나 동등할 때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 선택의 문제의 하나가 'sullied *vs* solid'이다.

Hamlet의 첫 독백의 첫행은 세 text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Q1: O that this too much grieu'd and sallied flesh/Would melt
Q2: O that this too too sallied flesh would melt,
F: Oh that this too too solid Flesh, would melt,

여기서 Q2와 F는 모두 4개의 variant를 갖고 있다—'O *vs* Oh', 'sallied *vs* solid', 'flesh *vs* Flesh', 'flesh *vs* Flesh,'. 이 중 세개는 의미상의 변화가 없는 'accidental'한 것이고, 뜻의 변화를 수반하는 'substantive' variant는 'sallied *vs* solid' 뿐인데, Q1의 reading이 Q2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본래 쓴 단어가 'sallied(=sullied)이냐 아니면 'solid'이냐에 대한 열띤 논쟁이 본문비평가들 사이에 있어 왔고 이것은 아직 종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문맥 속에서 그나름으로 어울리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sallied'는 Hamlet 왕자의 피와 명예가 어머니의 정숙하지 못한 타락적 행동으로 더렵혀 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서 *Hamlet* 극 전체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다. 한편 'solid'는 Hamlet의 'flesh'가 굳고 질기다는 말하자면 극 전체보다는 'flesh'에만 국한된 수식어일 뿐이다.

이렇게 'sallied'와 'solid'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쓴 단어가 어느 것인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면 'sullied/solid'의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주요 의견들과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해 각자가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Q2를 copy-text(editor가 자신의 edition의 바탕으로 삼는 printed edition이나 MS)로 삼아 *Hamlet* edition(1934)을 낸 J. Dover Wilson은 자연 Q2의 reading을 따라서 'sallied' 곧 sullied를 취했다. 그는 1918년 5월 16일자와 6월 25일자의 타임즈 문예부록(*TLS*)에서 이미 이 문제를 논한 바 있었는데, 그의 *Hamlet* edition과 때를 맞추어 내놓은 *The Manuscript of Shakespeare's 'Hamlet' and the Problems of its Transmission*(2 vols)에서 보다 더 소상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다.

Wilson은 'sallied'가 원고의 'sullied'를 식자공이 오독함으로써 생긴 오식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식자공이 *u*를 *a*로 잘못 보았다는 것이며, Q2에는 바로 이 원인에 의한 오식이 많다면서 'Gertrad'(Gertrude), 'coarse'(course), 'quietas'(quietus)를 들었다.

sully가 'sally'로 잘못 식자된 Q2의 예로서 'sallied'(1. 2. 129) 외에도 'sallies'(2. 1. 39)가 있으며, *Love's Labour's Lost*의 Q와 F에서도 unsullied를 'vnsallied'(5. 2. 351)로 식자했음을 지적하면서 Wilson은 *Hamlet*의 Q2와 *Love's Labour's Lost*를 식자한 식자공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을 것임에 비추어 상이한 두 식자공이 동일한 오식을 범했다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일단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즉 셰익스피어는 *u*자를 *a*로 오독하게끔 썼다는 것이다.

한편 Wilson은 'solid'는 그 다음 행의 'thaw'와 'dew'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sullied'만이 문맥이 제시하고 있는 'a surface of pure white'에 오점이 생긴 심상을 잘 전달해 준다고 했다.

'Melt—thaw—dew'; the image behind those words is unquestionable. Hamlet is thinking of

snow begrimed with soot and dirt, as it often is melting, and wishing that his 'sullied flesh' might melt as snow melts in time of thaw. Without the word 'sullied' there would be no clue at all to this, and the picture of melting, thawing and dissolving into dewdrops would remain pointless—with 'solid flesh', I venture to think, a little ridiculous. (Wilson, 1934:313)

Wilson(1934:315)은 Hamlet의 첫 독백은 그의 순결성이 더럽혀 졌다는 말로 시작됨으로써 그를 염세적으로 만든 것은 모친의 타락된 근친상간적 불륜과 부도덕적 행위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또 Hamlet의 'this goodly frame the earth...a sterile promontory', 'foul and pestilent congregation of vapours', 'imagination...as foul as Vulcan's stithy', 'bed of luxury', 'virtue cannot so innoculate our old stock but we shall relish of it', 'I could accuse me of such things that it were better my mother had not borne me' 등과 같은 구절의 뜻을 주는 단서도 'sullied'만이 될 수 있어서 양 Q의 'sullied'가 시적으로나 극적으로 문맥에 더 들어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요컨대, Wilson(1934:312-3)은 눈처럼 흰 'a surface of pure white'에 오점이 생겨 더럽혀지는 심상에는 'solid'보다 'sullied'가 더 어울린다는 것인데, 그는 심상—문맥상의 논증 외에도 셰익스피어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ully'를 사용한 8개의 경우를 추가적인 증거로 제시했다—*1H4*, 2.4. 83-4; ***WT***, 1.2. 326-7; *1H6*, 4.4.6; ***MWW***, 2.1. 102-3; ***LLL***, 5.2. 351-2; ***Hamlet***, 2.1. 39; ***Sonnets***, 15, 12; ***Sonnets***, 69, 11-4. 이 중에서 ***WT***의 'sully The purity and whiteness of my sheets'는 문제의 ***Hamlet***의 것과 매우 유사한 image를 매우 유사한 단어들로 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심상을 위해서 'sullied'를 사용한 Philip Massenger의 예를 Wilson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하나로 들 수 있다고 본다.

Massenger의 ***A New Way to Pay Old Debts: A Comedei***(London, 1633)의 4막 1장에서 Overreac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For though I doe contemne report my selfe,
> As a meere sound, I still will be so tender
> Of what concernes you in all points of Honour,
> That the immaculate whitenesse of your Fame,
> Nor your vnquestion'd integrity
> Shall e're be sullied with one taint, or spot
> That may take from your innocence, and candor.[1]

'points of Honour', 'immaculate whitenesse of your Fame'이 'one taint, or spot'에 의해서 'sullied'되어 'your innocence'를 더럽힌다는 image는 Hamlet의 첫 독백의 처음 몇 행의 image와 아주 근사함을 간과할 수 없다.

W.W. Greg도 Dover Wilson의 의견과 비슷한 것을 'Principles of Emendation in Shakespeare'에서 피력했다. 그는 Hamlet역을 한 Burbage의 waistband를 보면 쉽게 Burbage가 살찐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살찐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solid'를 사용했을리 없다면서 'solid'는 Q1와 Q2의 reading 'sallied'에 대한 필사적인 추측

[1] A Scolar Press Facsimile edition of *A New Way to Pay Old Debts* (1969).

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A vision of Burbage's waist-band should suffice to prove that...Shakespeare can never have meant to write 'solid' here. It is a desperate guess for the unintelligible 'sallied' of the quartos. The problem is therefore one of emendation.... (Greg, 1928:169)

또 Greg는 Burbage가 몸이 나고 있었음을 극의 끝에 있는 friendly match에서 Hamlet가 'fat'하다고 한데서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신체적 결함을 강조함으로써 진지한 대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지극히 나쁜 영향을 작품에 주었을 것이기에 셰익스피어가 여기서 'solid'를 쓸 마음은 조금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Burbage was getting a little portly, for Hamlet we learn was 'fat' (v. ii. 279), but though Shakespeare might safely poke fun at him in the fencing match, to begin a serious speech by emphasizing the defect would have been disastrous. It follows that...he cannot possibly have intended to write 'solid' here. (Greg, 1928:207)

간단히 말해서 Greg는 F의 'solid'는 뜻이 통하지 않는 Q1와 Q2의 'sallied'에 대한 추측의 결과이며, 한편 Q2의 다른 곳에서 'sullies'의 오식으로 'sallies'(F 'sulleyes')가 나타난 것은 식자공들이 번번이 셰익스피어의 'sullied'를 'sallied'로 오독하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The folio's 'solid' is a guess we must reject; the 'sallied' of the quartos is unintelligible. But 'sallies' occurs elsewhere in the second quarto as a misprint for 'sullies', showing that the words could be easily confused in Shakespeare's hand. Thus, when he intended 'sullied' flesh, it was twice misread as 'sallied' and finally misemended to 'solid'. Of this explanation I have little doubt. (Greg, 1928:171-2)

Malcolm Ware는 1960년에 'sullied'와 'solid'에 관한 짧막한 글을 발표하고(Ware, 1960: 490) Dover Wilson이 자신보다 먼저 'sullied'를 선택한 사람으로서 소설가 George Macdonald (1855)와 Edward Dowden (1899년의 그의 'Arden' edition)을 언급했지만(***The Manuscript of Shakespeare's 'Hamlet'*** II, 307), 이 emendation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시인 Tennyson으로 보인다고 했다. Tennyson은 1883년에 Hamlet를 'the greatest single creation in literature' (***Memoir***, New York, 1897, II, 291)라고 했다면서 Ware는 이보다 3년 전에 Tennyson은 셰익스피어의 text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을 하다가 이 emendation 곧 'sullied'를 제의했음을 그가 F.J. Furnivall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Ware가 the Yale Collection of Tennyson Papers에서 전사한 문제의 편지에 의하면 Tennyson은 'sullied'를 제의했으나 개인적으로는 'solid'가 'melt'와 'resolve' 등과 일치하기 때문에 'solid'를 더 좋아하며, 교정하지 않은 자신의 교정쇄들속에서 'solid'를 족히 'sallied'로 오식하는 것과 같은 조잡한 오식들을 보았다고 했다.

My dear Mr. Furnivall,

Has anyone suggested for the reading in the quarto

'grieved & sullied flesh'

i.e. sullied as it were thru the sin of the mother. 'Sollied' (tho' I know Shakespeare forged some strange words) seems too harsh to me. I suppose it is not used by any synchronous writer.

On the whole, I prefer 'solid.' 'Melt', 'resolve' correspond with it. 'Solid flesh' is only 'this

weary weight of the flesh, would I were rid of it."

I may add that I have seen in my own unrevised proof sheets quite as uncouth misprints as 'sallied' for 'solid.'

Very truly

〔The signature is cut off.〕

III

'sullied *vs.* solid' 논쟁은 195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 치열해지며, 서지학자 Fredson Bowers와 언어 혹은 음운학자인 Helge Kökeritz간의 논쟁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Bowers는 Q의 'sallied'가 correct reading이며, 'sallied'는 'sullied'의 rare variant이라면서 'sullied'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sullied를 주장한 점에서는 Dover Wilson과 같으나 'sallied'를 'sullied'의 오식으로 본 Wilson과는 달리 Bowers는 'sallied'를 'sullied'의 한 변형으로 보았다. Bowers가 sally를 sully의 misspelling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적법적인 sully의 철자형태로 본 것은 그 접근법에 있어서 Wilson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Bowers (1956:44)는 Dekker가 ***Patient Grissil***에서 'Then sally not this morning with foule lookes' (1.1. 12)라고 'sally'를 sully의 뜻으로 쓴 것을 들면서 sally는 Dover Wilson이 생각하고 싶었듯이 혼동하기 쉽게 쓰여진 sully를 오독함으로써 낳은 식자공의 오식이 아니라 sully의 'a legitimate variant'라고 했다.

Bowers는 Q2의 'sallied'가 저질 reported text인 Q1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며, Q1의 reading인 'sallied'는 'solid'를 오청하여 생긴 것이라는 설을 일축한다. 그는 'solid'는 ***grieu'd***와 균형을 이루는 단어도 될 수 없고 ***too much***의 수식을 받는 단어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solid'를 오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는 'solid'가 방어될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논리적 전제 중의 하나를 근거로 가져야 한다고 했다.

(1) 셰익스피어의 원고에는 ***solid flesh***가 ***sallied flesh***와 흡사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것이 들어있는 배우의 part(그리고 아마도 prompt-book)를 전사한 필생이 *solid*를 *sallied*로 오독하였다. Q2의 식자공이 1.2. 129행에 이르러 어쩌면 동일한 것이었을 셰익스피어의 원고에서 문제의 단어를 읽게 되었을 때 그는 (a) 필생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b) 그 단어가 확실치 않아 Q1를 참조하였으며 거기서 문제의 단어(sallied)를 취했다. 그후 2.1. 39행에 이르렀을 때도 동일한 필적상의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원고의 *sullies*를 *sallies*로 잘못보게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독은 *Hamlet* 외에는 ***Love's Labour's Lost***에서만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심히 속기 잘하는 사람만이 이 'furious coincidence'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Bowers는 *solid*였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2) Q2의 인쇄원고는 *solid*로 되어 있고, Q1의 *sallied*는 배우의 기억의 와전이며, Q2의 식자공이 1.2. 129행에 이르렀을 때 그는 Q1에서 *sallied*를 취했다. 식자공이 2.1. 39행에 이르렀을 때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는 글씨를 잘못 읽었거나 잘못 풀이하여 또 앞서의 *sallied* flesh의 기억도 있고 하여 *sullies* 대신 *sallies*로 식자했다. 이 전제도 Bowers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다.

요컨대, Bowers(1956:45-6)는 Dover Wilson의 설명방식을 버리고 *sally*를 *sully*의 variant spelling의 하나로 본다면 오식이 있었다든지 *sallied*의 영향으로 *sallies*가 되었다고 추측할 필요없이 *sullied*와 *sullies*를 correct reading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했다.

Bowers는 *sallied*와 *sallies* 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더 적절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즉 서지학적 분석으로 Q2에서 'this too too sallied flesh'가 들어 있는 Sig. E1ᵛ를 포함한 sheet E와 'sallies'가 들어 있는 Sig. C1을 포함한 sheet C는 거의 동시에 각기 다른 인쇄기에서 인쇄되었음과 따라서 다른 식자공들에 의해서 식자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2] 따라서 *sallied*의 영향으로 *sallies*가 생겨난 것이 아니며 이 둘 중의 하나가 올바른 것이라면 다른 하나도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이다. *sallied*가 잘못된 Q1의 reading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solid*가 유지될 수 있는 논거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Bowers는 *sallied*와 *sallies*가 서로 다른 두 식자공과 인쇄기의 소산이란 서지학적 연구를 이용하여 이 유명한 본문상의 crux를 sullied로 해결한다.

> Double handwriting error by two compositors is improbable enough, but it is surely impossible in this case given the First Quarto's *sallied flesh*. Hence since Polonius's *sallies* must have been written in the manuscript, it is mere fantasy to hold that *solid* was present in the manuscript for Hamlet's soliloquy but by one cause or another the compositor corrupted it to the rare form *sallied*, and this by the purest chance was repeated by a different compositor from his manuscript in another sheet. On the evidence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black on white image for *sully* and of the *thaw* and *melt* for flesh compared to snow; on the belief that Hamlet's feeling his flesh to be soiled by his mother's incestuous marriage is not a far-fetched idea; on the linguistic suggestion that *sally* is not a misprint for *sully* but a legitimate though rare form; on the evidence that the same word in its rare variant form was set by two different compositors in the same play and therefore the two appearances have no possible connexion with each other, one can now expose an error in criticism and by the application of the mechanical evidence of bibliography establish the text for an individual reading. (Bowers, 1956:47)

Bowers는 그의 문제의 논문에 달은 주석 2(Bowers, 1956:47-8)에서 Yale대학의 Helge Kökeritz가 *Shakespeare's Pronunciation*(New Haven, 1953)에서 밝힌 입장, 특히 p. 242와 note의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Kökeritz가 어떤 명백한 입장을 'sullied *vs* solid' 문제에 대해 취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Love's Labour's Lost*의 *unsallied*를 오식으로 보는 쪽을 택하는 듯이 글을 시작하여 이 *unsallied*가 *Hamlet*의 *sallied*를 *sullied*로 풀이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였다가 *sallied*는 *solid*의 'unrounded form'일 수도 있다는 등 어느 한 쪽을 택하는 일을 피하고 있는 혼란된 언어학자라고 했다. Bowers는 Kökeritz가 Dekker의 *sally*도 모르고 있고, 이상하게도 Polonius의 *sallies*도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이어 Bowers는 이 문제를 도피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의 Kökeritz의 책을 *Language*(XXIX, 1953, 560-1)에서 서평한 바도 있는 A.A. Hill교수를 들면서 사적인 편지에서 그에게 밝혔다는 보다 자세한 Hill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a) *sully-sally*의 형태로 변형을 낳을 sound change는 사투리이든 아니든 없다. 영어역사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기에 속단은 금물이지만 아직 이와 같은 sound change는 알려지지 않았다.

---

[2] Bowers(1956 : 48). Bower는 John Russell Brown의 'The Compositors of *Hamlet* Q2 and *The Merchant of Venice*' (*Studies in Bibliography*, VII, 1955, 17-40)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b) 만약 *sallied*를 sound change의 결과로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통 'o'로 철자되는 low back vowel의 'a development of unrounding and forwarding'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sallied*가 *solid*의 변형임음을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끝이 *-ied*로 철자되는 동사의 어미가 *solid, frigid* 등과 같은 형용사적인 형태들의 어미 *-id*와 교류된 예는 아직 한 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를 뿐이다. 즉 *sallied*를 정상적인 English processes에 의한 가능한 변형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sallied*가 어떤 sound change에 의한 결과라는 것은 지극히 있기 힘들다.

(c) *u*를 *a*로 잘못 읽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sally-sully* 변형들의 증거에만 의존한 것이라면서 셰익스피어의 handwriting이 혼란되어 있다는 설을 *sally-sully*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순환논법적이다.

(d) *sally*의 예는 셰익스피어에 셋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식자공이 관련되어 있고 아마도 두개의 다른 종류의 인쇄원고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독립적인 네번 째 예가 Dekker에 있다. *a*가 *u*의 오독으로 가정하려면 네개의 별개의 가정들을 필요로 한다.

(e) 엘리자베스 시대의 단어 *sally=soiled*를 가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개의 가정 뿐이기에 보다 더 간단하다. 우리가 Elizabethan vocabulary 전체를 기록했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에는 어느 면으로나 radical한 것은 하나도 없다.

(f) *sally*가 genuine word라면 이것은 sound change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어 *sale*에서 빌려온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것이 그후 사라진 것은 *sally*('issue forth to attack')와의 homonymity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IV

서지학자인 Bowers의 이와 같은 논박은 philologist 혹은 linguist인 Kökeritz로부터 맹렬한 반응을 자아냈다. Kökeritz는 1958년에 'This Sullied Solid Flesh'를 발표하고 Bowers는 역사적인 음운론과 어원론의 근본적인 원칙들과 방법들까지도 모르고 있음이 틀림없으며, 그의 견해들과 결론들의 단 하나도 음운적으로나 어원적으로나 유효한 것이 없으며 오직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 It represents the reasoning of one who is manifestly unfamiliar with even the basic principles and methods of historical phonology and etymology. The fact is that not a single one of his arguments and conclusions is phonologically and etymologically valid. They are nothing but unscrupulous conjectures. (Kökeritz, 1958:10)

Kökeritz는 'sallied'에 관해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leap' 혹은 'issue forth'를 의미하는 'sally'의 과거분사도 아니고, Bowers가 주장하듯 'soil'의 뜻을 지닌 것으로 기록된 적도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sally'의 과거분사도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sallied'가 'sullied'의 오식일 수는 있어도 'sullied'의 적법적인 변형은 될 수 없다면서 셰익스피어의 원문은 *sullied*가 아니면 *solid*일 것이지만 과연 이 중의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 It is either *solid* or *sullied* and will therefore probably remain a bone of contention among critics till the end of time. (Kökeritz, 1958:4)

Kökeritz는 *sullied*와 *solid*가 당시의 변덕스러운 철자법 때문에 지닐 수 있었을 변형들을 참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만 한 것은 *sallied*는 *solid*의 변형들의 하나는 될 수 있어도 *sullied*의 변형들에는 들어있지 않은 점이다.

sullied—sullid, sullyed, sullid(e), sulled, sulleyed 및 sollied, solied; sollyed, solyed; sollid(e), solid(e); solled, soled; solleyed, soleyed.
solid—sallid(e), sallied, salled, sol(l)id(e), sol(l)ied, sol(l)ed. (Kökeritz, 1956:9)

Kökeritz는 이상의 변형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sullied*와 *solid*가 동일하게 철자될 수 있는 글자상의 중첩영역을 지니고 있어서 셰익스피어가 'sollied'라고 썼을 경우에 이 형태(form)는 쉽사리 F의 *solid*로 식자될 수 있었고 Q1, 2의 *sallied*로 식자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설만이 두 가지의 본문의 변형(*sallied*와 *solid*)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가상의 longhand form인 'sollied'가 *solid*를 나타낸 것인지 'sullied'를 나타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semantic solution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Kökeritz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래의 주장과 논지를 견지한 Kökeritz(1958:10)는 '*solid-sallied*'의 문제가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란 비관을 피력했다.

한편 Bowers의 'Hamlet's "Sullied" or "Solid" Flesh: A Bibliographical Case History'는 유수한 서지학자요 본문비평가인 Alice Walker에 의해서도 반박당했다. Walker가 특히 불만스러워한 것은 두 식자공들이 각각 1.2. 129의 'sallied'와 2.1. 39의 'sallies'를 'sullied'와 'sullies' 대신에 식자하는 동일한 blunder를 범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점과 'sully'가 'sally'로 된 예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므로 'sally'는 'sully'이다라는 Bowers의 주장이었다.

Walker는 이와 매우 흡사한 예를 *Troilus and Cressida*에서 들고 있다. 이 극의 Q와 F 본문들은 모두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데 Q를 출판한 Eld의 식자공의 한 사람은 5.2. 41에서 'distruction'(F 'distraction')을 식자하고 다른 식자공은 5.3. 85에서 'destruction'(F 'distration')을 식자했다. 또 3.2. 24의 'distruction'(Q, F)은 앞의 두 예와 더불어 *Hamlet* Q1와 Q2의 'sullied' fresh처럼 common error일 수 있다. Walker는 이와 같은 증거가 'destruction'과 'distraction'이 동일하다는 점을 책임있는 lexicographer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초서체인 secretary hand를 알고 있는 editor라면 'u'와 'a'의 혼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변형들은 그것들의 시비에 따라서 오직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Walker는 'solid'인지 'sullied'인지는 editor들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자기로서는 'solid'와 'sullied'가 homophone이기 때문에 Q1의 reporter는 그가 들은 것을 같은 행들 속에 있는 Denmark에 대한 sally('assay of arms')와 연결지었으며 Almighty의 'canon'의 본질에 대한 오해도 sally로 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Q1를 report한 자의 마음의 구조를 알아낼 방도는 없기 때문에 editor로 하여금 보다 더 적합한 단어를 택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sullied'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sullied' flesh가 녹아버리면 그것이 어떻게해서 보다 더 깨끗해진다는 것인지를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함으로써 Walker가 'sullied'에 대해 약간 회의적임을 암시하는 듯 하지만 Walker의 결론은 Kökeritz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어서 'solid'인지 'sullied'인지를 해결하기

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allied' leaves editors to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Hamlet's wish was for a general transmutation of the lowest element in human nature (what was gross or 'solid') into something less earthy or whether he refers only to his own (vicarious) stain ('sullied'). What I have never been explained in connexion with the latter interpretation is how the liquefaction of what is sullied results in anything cleaner.

For my part, I suspect that Q1 transferred brother Norway's griefs (Voltemand's speech, 2.2. 65-71 'Whereat grieved', etc.) to Hamlet and that, since 'solid' and 'sullied' were homophones, the reporter connected what he heard with the sally ('assay of arms') against Denmark in the same lines, assisted perhaps by a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Almighty's 'canon'. But there's no art to find the mind's construction in the reporting of Q1, and editorial sanity will best be preserved by trusting the fitter word. (Walker, 1958:318)

V

Hamlet가 녹아버렸으면 하고 소원한 것이 그의 'sallied' 혹은 'sullied' flesh였느냐 아니면 'solid' flesh였느냐는 이상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textual crux임에 틀림없다. 'sallied'(혹은 'sullied') 설은 이것이 Q1와 Q2의 reading인데다가 Q1는 지극히 불량하고 저질의 본문이며 문제된 reading을 포함한 *Hamlet*의 1막 전체가 Q1의 영향으로 매우 심각하게 더럽혀졌다는 본문연구의 결과로 크게 불리해졌다. 만약 Q2의 'sallied'가 Q1의 'sallied'에서 온 것이 확실하다면 (Bowers는 이를 부인하고 Q2의 식자공이 그의 MS에서 발견한 대로 이 단어를 올바르게 식자했다고 했다.) F의 'solid'를 셰익스피어의 MS에 보다 더 가까운 reading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muel A. Weiss는 Dover Wilson과 F. Bowers의 'sullied'설을 개관하고 'sullied flesh'와 'solid flesh'중 어느 것이 그 대목의 'the literary requirements'에 들어맞는가를 이미 셰익스피어가 *Hamlet* 이전의 다른 작품들에서 사용한 언어와의 관련 속에서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서 'solid flesh'를 답으로 제시했다(Weiss, 1958:219-27).

Weiss는 *Henry IV, Part II, As You Like It, Troilus and Cressida, Hamlet*에서 certain cluster image들을 찾아 본 결과 이 네 작품에 나타난 고체(a solid)가 녹는 idea가 disillusioned character들의 마음 속에서 disease, food, gardens, storms and fortune, clothing, beds, books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내었다. 따라서 그는 *Hamlet*의 1.2. 129의 뜻은 Hamlet가 그의 생존의 종말을 원하고 있으나 그의 'too, too *solid* flesh'는 녹아버리려하지 않는다고 풀이함으로써 'solid'를 취한다.

Weiss의 결론은 G.M. Young과 G.L. Kittredge의 글에서 얻은 힌트에서 나온 것이다. Young은 Dover Wilson의 'sullied'설에 대해 *TLS*(Jan. 17, 1935, p.33)에 기고한 글에서 *Henry IV, Part II*의 3.1. 45ff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Hamlet의 독백의 내용('the movement and cadence')과 흡사한 'weariness, solidity, melting, voluntary death'를 발견한다면서 'solid'를 내세웠던 것이다.

> Oh God! that one might read the book of fate,
> And see the revolution of the times

Make mountains level, and the continent,
Weary of solid firmness, melt itself
Into the sea! And other times to see
The beachy girdle of the ocean
Too wide for Neptune's hips, how chances mock,
And changes fill the cup of alteration
With divers liquors! Oh, if this were seen,
The happiest youth, viewing his progress through,
What perils past, what crosses to ensue,
Would shut the book, and sit him down and die.

Kittredge는 그의 *Hamlet* edition(Ginn and Company, 1935)에 단 주석에서 George MacDonald의 'sullied'설과 이를 옹호한 Dover Wilson의 풀이를 언급하고 *sallied*가 *sullied*의 'an easy misprint'가 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Wilson의 설은 너무나 거리가 멀며 *solid*가 올바르다고 했다.

But the explanation of *sullied* as indicating that Hamlet regards his own flesh as defiled by his mother's incest is far-fetched, and *solid* is obviously correct. Hamlet wishes that one who, like himself, is tired of life could melt away with a wish, or that suicide were not forbidden by God's law: 'Thou shalt not kill.'(Kittredge, 1939:146)

이어 Kittredge는 Hamlet의 독백의 그 다음부분이 어째서 그가 염세적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Henry IV, Part II*의 3.1. 47-49에서도 여기에 쓰인 구절들과 일치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What follows explains why he is life-weary. There is a curious coincidence of phraseology (*weary*, *solid*, and *melt*) in 2 *Henry IV*, iii, 1. 47-49:

And the continent,
Weary of solid firmness, melt itself
Into the sea! (Kittredge, 1939:146)

Weiss는 Young과 Kittredge가 지적한 이상의 깊고 의미심장한 관계를 이 두 장면 사이에서 본다. Henry왕과 Hamlet는 충성심의 'a bitter reversal' 곧 이상적인 인생의 질서를 어지럽힌 배반행동으로 몹시 마음이 흔들렸다. Henry왕의 불안은 측근의 동조자였던 Northumberland의 반란으로, Hamlet의 desperation은 부친 사망 직후에 있은 모친의 조급한 재혼으로 야기되었다. 이 두 사람에게 세상은 corruption과 disease에 감염된 듯이 보이며, 그들은 인간관계의 불안정성과 변화무쌍함을 탄하고 있으며, 이 불안정성과 변화무쌍함은 지극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자살까지도 소망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Weiss, 1958:220).

Weiss는 mutability의 문제가 바로 왕자의 비극의 핵심 속에 깃들어 있으며, Henry의 mutablity 풀이는 염세적이고 비극적인데 Henry는 궁극적으로 'argument of necessity'에 굴한다는 것이다.

His lament is called forth, not merely by elementary awareness that all objects of nature are subject to the decay of time, but by the thought that instability rules as well in the human heart and that human faith and friendship are no more secure from the ravages of time than human life itself. (Weiss, 1958:221)

요컨대, 국가의 상태는 Disease(Medicine), Food, Garden의 심상들로 상징되고 악이 관련된 Time(Fate)은 Sea(storm, ebb, flow), Books(written record of time), Garden(growth and decay)의 심상으로 되어 있다. 시간의 기능은 breeder의 기능이지만 이 보다 더 두드러지게는 destroyer의 기능이며, 시간의 무서운 힘은 가장 찔긴 물질들인 mountain과 'solid' continent를 용해하는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Weiss, 1958:223).

Henry처럼 Hamlet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시간에 마음이 동하지만 Henry와는 달리 'argument of necessity'와 natural fate에 굴복하지 않는다. 'fathers'의 죽음은 인간상사요 불가항력이지만 사랑과 충성심의 쇠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가 전개하는 necessity의 충고(counsels)를 거절한다. 육체적, 인간적 본성의 불안정을 깨달은 Hamlet에게 세상만사는 모두가 *'weary*, stale, *flat*, and unprofitable'하다. 세상은 *'unweeded garden,*/That *grows* to *seed*, things *rank* and *gross* in rature/Possess it merely.'이다. 이 장면 끝에 가서 그는 *'foul* play'와 *'foul* deeds'를 말한다. 어머니를 몹시 사랑하여 'the *winds* of heaven/*Visit* her face too *roughly*'도 용인하지 않았던 부친이 사망한지 거의 두 달도 안되었을 때의 일이다.

Henry IV, Part II, 3.1. 21-4에도 이와 유사한 심상들을 볼 수 있다—the *visit*ation of the *winds,*/Who take the *ruffian* billows by the top,/...*hang*ing them/With deafening clamour in the *slippery* clouds.' Hamlet의 'she would *hang* on him,' 'Oh, most wicked *speed*, to *post*/With such dexterity to incestuous *sheets.*'가 Henry의 'good speed'(post with dexterity)와 'loathsome beds'와 통합은 물론이다.

Weiss는 셰익스피어가 무의식적으로 이 imagery와 많은 경우에 *Hamlet* 이전 작품들의 언어를 되풀이 사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sullied' flesh가 아니라 'solid' flesh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onscious of the effects of mutability, Hamlet wishes to suffer the ultimate human mutation in time: death. Like the continent in Henry's speech, he is 'weary of *solid* firmness', but unlike the continent which can and does *'melt* itself/Into the sea', Hamlet's flesh will not *'melt*/Thaw, and resolve itself into a dew.' 'And why not? Because it is 'too too *solid*'. This is precisely the anguish in Hamlet's cry, the cry of a man who wishes to die but who finds his body resisting dissolution. And this is what is completely lost in Dover Wilson's interpretation. The image may well be that of snow (cf. *Richard II*, IV. i. 260-262.), but to propose that it is 'sullied' snow is to deprive the passage of its inescapable emotional tension and meaning. (Weiss, 1958:225)

Weiss(1958:223, 226-7)는 mutability와 관계된 이 imagery를 *Henry IV, Part II*와 *Hamlet* 사이에 저작된 *As You Like It*에서도 발견하며 그 후의 작품인 *Troilus and Cressida*에서도 발견한다. 결국 'solid'는 셰익스피어가 무의식적으로 전에 사용한 단어를 되풀이 사용한 예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imagery 분석으로 Weiss는 *solid*를 셰익스피어의 본래의 reading으로 'sallied' (혹은 'sullied') 대신에 취한다.

> Viewed thus in relation to Shakespeare's unconscious habit of repeating image clusters and studied in light of contextual demands of the passage, the *sallied*, *solid* dispute ought to be settled, I believe, in favor of the only truly meaningful and Shakespearian reading: '*solid* flesh'.
> (Weiss, 1958:227)

VI

Richard Flatter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Hamlet의 flesh가 'solid냐 'sullied'냐는 일개의 모음의 발음에 국한되는 문제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 어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신은 1936년에 *Hamlet*를 독어를 번역할 때 F reading인 'solid'를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Dover Wilson의 *The Manuscript of Shakespeare's 'Hamlet'* (1934)를 매우 세밀히 검토한 결과 Q2가 작가의 자필원고에서 조판된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definitive version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무대본으로 쓰인 F text이기 때문에 'solid'를 취했다고 했다.[3]

한편 Flatter(1960:491)는 Dover Wilson의 권위를 생각할 때 자신의 주장에 회의를 느끼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질문을 자문했다고 했다. Wilson은 Hamlet가 눈이 soot와 dirt로 더럽혀진 것——눈이 녹을 때 종종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하고 문제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Wilson의 이 제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자신의 emendation('sallied'와 'solid'를 'sullied'로 고치는 것) 뿐인데 상식적으로 transmitted text의 reading이 뜻이 통할 때는 emendation을 삼가야하지 않겠는가? Hamlet가 그의 flesh를 말할 때 snow를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과연 'sullied' snow가 unsullied snow보다 더 쉽사리 녹는가? 그런데 Hamlet가 탄하고 있는 것은 그의 몸이 너무…(무엇이 너무해서인지 즉 solid해서인지 sullied해서인지는 알아내어야 한다)해서 녹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눈이 더럽혀졌다는 우발적인 상황이 눈이 녹는데 방해가 되었는가? 어째서 Hamlet는 자신의 flesh가 'sullied' 되었다고 보는가? Wilson은 자식은 어버이의 뼈의 뼈이기 때문에 Hamlet의 피가 어머니의 행실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설명하지만 Hamlet가 어머니의 flesh의 일부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녀의 dirt가 아들의 dirt가 될 수는 없다고 Flatter는 말하며, 만약 Hamlet가 그의 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의 soul이나 mind에 대해서 말했다면 tainted 되었다는 그의 느낌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solid'를 주장한다.

Wilson이 1601년에 'a stout party'가 되어 가고 있었고 *Hamlet*를 공연할 때마다 'more and more portly'해간 Burbage가 'O that this too too solid Flesh would melt!'라고 했다면 온통 극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공연을 완전히 망쳤을 것이라면서 'solid'의 부적합성을 말한데 대해서 Flatter(1960:491-2)는 Wilson의 주장이 W.W. Greg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Burbage가 1601년이나 그 후에 뚱뚱했는지 여위였는지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자화상으로 되어있는 그의 초상화 하나로 그의 체중과 waist-band에 대해서 추측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3] 무대본이 자필원고보다 더 권위있는 text라는 Flatter의 주장은 지금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무대본은 작가의 원고에 prompter(혹은 book-keeper)나 scribe의 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Wilson을 논박한 Flatter는 가장 중요한 것은 F reading인 'solid flesh'가 과연 의미를 이루는가 이라면서 Hamlet의 문제의 독백의 서두를 분석한다. 즉 Hamlet는 죽고 싶어하나 인간의 살은 너무 견고해서 소유자의 마음대로 녹아버리지도 않으며, 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자살하는 행동을 금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I wish I were dead. But alas! neither does human flesh melt away at its owner's desire, nor are we permitted to commit suicide. Against this, the Everlasting has fixed His canon, nor are we granted the benefit simply at wish to disappear from this earth: our body is too solid, otherwise we might thaw and resolve ourselves into a dew." (Flatter, 1960:492)

Flatter는 동사 'to melt'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엘리자베스 시대영어의 뜻으로 이 말은 열에 의해서 단순히 액화된다는 뜻 이상이 뜻을 갖고 있었는가 즉 'to disappear from sight'의 뜻으로도 사용되었는가 질문한다. Flatter는 Weiss 등이 예로 들은 *Henry IV, Part II*, 3.1. 45ff의 대목을 들면서 Henry 왕이 'the revolution of the times that makes mountains level' 이라고 말하며

> ...and the continent,
> Weary of solid firmness, melt itself
> Into the sea...

라고 했을 때 continents가 'melt'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작은 인간은 훨씬 더 쉽사리 'melt'할 것이란 뜻이었음을 추측해 낼 수 있다고 했다. 땅조각은 floods, rain, storm에 의해서 부서져서 결국 'melt'하여 ocean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찾아내어야 하는 것은 산과 대륙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melt'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Flatter는 John Donne의 'So let us melt, and make no moise...' (*A Valediction Forbidding Mourning*) 외에도 셰익스피어 자신으로부터 세개의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1) By this, the boy that by her side lay kill'd
Was melted like a vapour from her sight...

Venus and Adonis, 1165f.

(2) These our actors
(As I foretold you) were all spirits and
Are melted into air, into thin air.

The Tempest 4.1. 148 ff.

(3) You shall do well,
That on the touching of her lips I may
Melt and no more be seen.

Pericles 5.3. 41ff. (Flatter, 1960:492-3)

이상과 같은 논거와 증거로 Flatter는 Weiss가 내린 결론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With those passages before our eyes we cannot but agree, I think, with Dr. Weiss's suggestion that the dispute about that emendation should now definitely be settled in favor of 'the only meaningful and Shakespearian reading: *solid* flesh'. (Flatter, 1960:493)

Flatter의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그의 결론이 아니라 Wilson, Bowers 등이 주장하는 'sullied'를 추측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emendation으로 단정함으로써 'sullied'의 적법성을 완전히 무시한 점이다. Wilson과 Bowers는 'sullied'가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쓴 단어라고 믿었으며 추호도 그것을 emendation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Wilson이 Q1, Q2의 reading인 'sallied'는 원고의 'sullied'를 오독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Bowers가 'sallied'를 'sullied'의 'a legitimate variant'로 본 것은 앞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해서 Flatter는 문제를 literary context에서만 해결하려 했으며, 서지학적 내지 palaeographical approach를 철두철미 무시하였다.

VII

이상에서 'sullied'냐 'solid'냐에 관한 학자들의 논쟁을 연대순으로 더듬어 보았다. Wilson, Greg, Bowers로 대변되는 서지학적 접근법은 'sullied'를 선호했고, Tennyson, Weiss, Flatter로 대변될 수 있는 문학적 혹은 의미론적 접근법은 'solid'를 선호했다. 그러나 philologist인 Kökeritz는 음성학적 내지 음운론적 접근법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의 MS reading이 'sullied'인지 'solid'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또 Walker는 서지학자이면서도 서지학적 접근법에 의한 Bowers의 결론을 물리치고 homophone들인 'solid'와 'sullied'는 editor들의 판단으로 선택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중 어느 것이 correct하냐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Kökeritz의 결론에 매우 접근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뜻은 서로 다르지만 'sullied'와 'solid'가 모두 문맥 속에서 훌륭한 의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sullied'는 'solid'보다 불리한 서지학적 증거를 갖고 있다. 첫째, 'sullied'가 'sallied'의 emendation이란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며, 둘째 Q2는 셰익스피어의 자필원고에서 인쇄되어 *Hamlet* text들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의 부분을 포함한 Act I은 저질본문인 Q1에서 왔다는 서지학적 연구결과이다. 이 두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ullied'를 계속 good text인 F의 상응하는 reading인 'solid'보다 선호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더 결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Kökeritz와 Walker의 입장이 지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Bowers, Fredson (1956) 'Hamlet's "Sullied" or "Solid" Flesh: A Bibliographical Case-History,' *Shakespeare Survey* 9.

Brown, John Russell (1955) 'The Compositors of *Hamlet* Q2 and *The Merchant of Venice*,' *Studies in Bibliography* VII, 17-40.

Flatter, Richard (1960) '"Solid" or "Sullied", and Another Query,' *Shakespeare Quarterly* XI.

Greg, W.W. (1928) 'Principles of Emendation in Shakespeare,'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London.

Himan, Charlton (1964) 'Note to Second Impression,' in Charlton Hinman, ed., *Hamlet, the Quarto of 1604-5: Shakespeare Quarto Facsimile* No. 4, Clarendon Press,

Oxford.

Kittredge, G.L., ed. (1939) *Shakespeare: Hamlet*, Ginn and Company.

Kökeritz, Helge (1958) 'This Sullied Solid Flesh,' *Studia Neophilogica* 30, Uppsala.

Walker, Alice (1958) 'Review of *Shakespeare Survey 9*,' *Review of English Studies*, n.s. 9.

——————— (1951) 'The Textual Problem of *Hamlet:* A Reconsideration,' *Review of English Studies*, n.s. II, 328-38.

——————— (1953) *Textual Problems of the First Folio*,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e, Malcolm (1960) 'Hamlet's *Sullied/Solid* Flesh,' *Shakespeare Quarterly* XI.

Weiss, Samuel A. (1958) '"Solid", "Sullied" and Mutability: A Study in Imagery,' *Shakespeare Quarterly* IX.

Wilson, J. Dover (1934) *The Manuscript of Shakespeare's 'Hamlet' and the Problems of its Transmission* Vol.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35) 'Letter to the Editor,' *Times Literary Supplement* (January 17, p. 13)

ABSTRACT

Hamlet's 'Solid/Sullied Flesh'

Kyung-Shik Lee

This paper attempts(1) to analyze some of the important arguments o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hakespearian textual cruxes, i.e. 'solid *vs* sullied' and (2) to show by way of conclusion which view should be subscribed to.

Being bibliographers, both Dover Wilson and Fredson Bowers tried to solve the question bibliographically and textually and ca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sullied' is what Shakespeare really wrote but with different evidence. Wilson argued that 'sallied' (Q2 reading) is the result of the compositor's misreading of the MS reading 'sullied' whereas Bowers holds that 'sallied' was, in Shakespeare's time, a legitimate form of 'sullied', his evidence being that 'sallied' (Q2, 1. 2. 129) and 'sallies' (Q2, 2. 1. 39) were the work of not one and the same compositor and press but of two different compositors and presses.

Bowers' argument, however, was refuted by one notable philologist and linguist Professor Helge Kökeritz and by one equally notable bibliographer Alice Walker. According to Kökeritz, that 'sallied' is a legitimate form of 'sullied' is out of the question. Walker finds it difficult to accept Bowers' argument that two compositors would not have made the same blunder and that therefore 'sally' equals 'sully', when she considers a close parallel that can be found in both texts of *Troilus and Cressida* (Q 'distruction'; F 'distraction'.

On the other hand, literary critics like G.M. Young, G.L. Kittredge, Samuel A. Weiss and Richard Flatter argued for F reading 'solid', their common evidence being certain cluster image to be found in *Henry IV*, Part II (3.1. 45ff) and other plays. That is to say, 'Shakespeare's unconscious habit of repeating image clusters' and 'the contextual demands of the passage' enable them to settle the crux in favour of '*solid* flesh'. Flatter ignored the legitimacy of 'sullied' and went as far as to say that 'sullied' is nothing but an emendation.

On the whole, scholars argued for 'sullied' and critics for 'solid'. Bu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Kökeritz and Walker made a notable and, indeed, important exception to this by saying that there would be no knowing which of the two variants Shakespeare really wrote and that it would be up to individual editors to choose between the two. This particular position should be subscribed to so long as any decisive evidence should turn up to dismiss one of the two as not Shakespearian.

15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
(접수: 1982. 3. 12)